

남녀 청소년들의 우울에 미치는 학교스트레스, 자아존중감, 부모-자녀 의사소통 및 부모의 내재적 지원의 효과*

이 은 희 최 태 산 서 미 정

전남대학교 BK21 부모-교사-학생의 자기 지도력 개발 연구단

본 연구는 남녀 고등학생 373명(남학생 176명, 여학생 197명)을 대상으로 하여 그들이 지각하는 중요한 학교관련 스트레스들은 무엇인지를 탐색하고, 그들이 지각하는 학교관련 스트레스, 자아존중감, 부모-자녀 의사소통, 부모의 내재적 지원 변인들 가운데 성차에 따라서 어떤 변인들이 그들이 지각하고 있는 우울을 더 많이 예측하는지를 확인하며, 학교관련 스트레스들이 그들이 지각하고 있는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부모-자녀 의사소통, 자아존중감, 부모의 내재적 지원의 완충효과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남학생들의 우울은 자아존중감, 학업스트레스, 부모-자녀 의사소통 변인 순으로 예측력이 있었으며, 여학생들의 우울은 자아존중감, 부모-자녀 의사소통, 학업스트레스, 학교폭력 스트레스 순으로 예측력이 나타났다. 남녀청소년 모두에게 자아존중감이 우울을 예측하는 중요한 예언변인임이 확인되었다. 남녀별로 자아존중감, 부모-자녀 의사소통, 부모의 내재적 지원변인들의 조절효과를 확인한 결과 여학생들에게서만 학교폭력과 우울과의 관계에서 부모의 내재적 지원의 역완충효과가 발견되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결과의 시사점과 제한점 및 향후 연구방향에 대한 제언이 논의되었다.

* 이 연구는 두뇌한국21사업의 지원을 받고 수행된 것임.

우리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심각한 사회문제 중의 하나가 청소년 문제임은 분명하며 이는 청소년이 경험하는 다양한 스트레스와 무관하지 않다. 이러한 스트레스 유발요인들은 일반적으로 발달과정에 있어 청소년기에 겪게 되는 급격한 정신적·신체적 변화들과 여기에서 발생하는 갈등과 긴장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청소년들은 청소년기에 일반적으로 겪어야 하는 발달변화 외에도 입시위주의 교육현실에서 비롯된 심한 입시경쟁의 부담과 공부에 대한 압박감 등으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으며(윤진, 1993; 한국청소년개발원, 1993) 이로 인하여 좌절, 반항, 우울증, 일탈행동 등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다양한 요인들 가운데서도 학교에서 자주 발생하고 있는 학교관련 스트레스와 우울을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청소년 우울에 대한 연구에 따르면, 385명의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BDI를 실시한 결과 그 중 9%가 보통에서 심각한 우울에 시달리고 있으며(Kaplan, Hong & Weinhold, 1984), 또 다른 연구에서는 568명의 고등학생들에게 BDI를 실시한 결과 27%가 중간정도의 우울을, 그리고 5%가 심각한 정도의 우울에 시달리고 있음을 밝혔다(Teri, 1982). 또한 400명 이상의 고등학생들에게 실시한 한 설문조사에서는 32%의 남학생들과 46%여학생들이 자살을 고려해 본 적이 있음을 보고(Simons & Murphy, 1985)한 것으로 보아 많은 청소년들이 다양한 이유로 우울과 자살생각에 시달리고 있음은 분명하다. 특히 최근에 와서 많은 연구들이 청소년 우울은 발달단계에서 겪는 일반적인 현상이 아니라 청소년 자살행위와 관련이 있고(Simons & Murphy, 1985), 차후 성인의 우울의 원인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어(Kandel & Davies, 1986) 청소년 우울에 대한

연구는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청소년들이 학교에서 어떠한 스트레스를 겪는지, 또는 어떤 스트레스가 청소년의 우울과 구체적으로 관계가 있는지에 대한 연구는 미흡하다. 특히 학교스트레스가 청소년 우울과 관계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여러 연구를 통해 지지되어 왔지만, 학교스트레스가 청소년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완충 작용을 하는 변인들에 대해서는 연구가 부족한 형편이다. 먼저 학교스트레스와 청소년의 우울간에 완충작용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변인들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족의 응집 및 적응과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이 청소년 비행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조사한 연구에 따르면, 청소년 비행은 전반적으로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과 부적 상관관계가 있어 청소년 자녀의 비행은 부모와의 소원한 의사소통으로 인한 상호이해 부족, 통제력 약화, 그리고 적절한 행동지도의 기회부족 때문(민하영, 1991)이며 부모-자녀간의 역기능적인 의사소통은 가족의 결속력과 적응력을 떨쳐 가정문제를 유발시켜 청소년 자녀의 자살생각에 영향을 주거나 비행친구와의 만남을 촉진시킴으로써 청소년 자녀의 비행을 유발할 수 있다(김선남, 1994; 최태산, 1997; Barnes & Olson, 1985). 다음으로 자아존중감은 많은 연구들에서 우울과 부적 상관이 있고 자살을 시도했거나 자살할 위험이 있는 청소년들은 자아존중감이 낮았다고 보고하고 있다(Beck, 1967; Kaplan, 1976). 또한 Kahle, Kulka 및 Klingel(1980)은 낮은 자아존중감을 갖는 남자 고등학생들이 후에 대인관계 문제를 갖고 있음을 밝혀 자아존중감이 청소년 부적응에 중요한 변인임을 지지했다. 마지막으로 부모의 내재적 지원은 자녀에게 자신이 인정받고 사랑 받는지를 보여주는 부모의 칭찬,

격려, 그리고 애정 어린 행동이라고 정의할 수 있는데(Rollins & Thomas, 1979), 많은 연구들은 부모의 지원과 청소년기의 적응과 부적응의 결과는 정적 관계가 있어 많은 지원과 애정은 바람직한 청소년기의 결과를 가져오며(Barber & Rollins, 1990; Barnes, Farrell, & Windle, 1987) 지원적 부모의 행동과 자녀의 자아존중감에는 정적 상관관계가 있어(Rosenberg, 1965) 높은 자아존중감을 가진 아동들이 낮은 자아존중감을 가진 아동들보다 더 부모와 애정 있고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Coopersmith, 1967),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부모의 많은 지원을 받는 청소년들이 높은 자아존중감을 갖는다고 밝힘으로써(Hoelter & Harper, 1987) 학교스트레스가 청소년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부모의 내재적 지원이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을 향상시켜, 그 결과 우울의 감소를 가져오는 간접효과를 보일 수도 있다. 하지만 성차에 따라 부모의 지원에 대한 영향이 다를 수 있음에 대한 연구(Openshaw, Thomas, & Rollins, 1984)중에서도 어떤 연구는 여아들의 자아존중감이 남아들보다 부모의 지원에 의하여 강력한 영향을 받는다는 연구(Gecas, 1971)와 반면 여아들보다 남아들에게 부모의 내재적 지원이 더 큰 영향을 준다는 연구(Hoelter, 1984)가 서로 상이한 결과를 보이고 있어 이에 대한 세밀한 연구가 필요하다 하겠다. 이러한 연구결과들은 학교스트레스가 청소년 우울에 미치는 과정에서 부모-자녀 의사소통,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그리고 부모의 내재적 지원이 어떻게 직·간접적으로 완충하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이 지각하는 중요한 학교관련 스트레스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탐색해 본 다음, 학교관련 스트레스, 자아존중감, 부모-자녀 의사소통, 부모의 내

재적 지원 가운데 청소년의 성차에 따라서 어떤 변인이 우울을 더 많이 설명하는지를 확인하고, 학교관련 스트레스가 청소년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부모-자녀 의사소통, 자아존중감, 부모의 내재적 지원이 완충효과가 있는지를 밝히고자 한다.

방 법

1. 조사대상자 및 조사과정

광주시내에 거주하고 있는 인문계 남녀고등학교에 재학중인 남학생 3개교 6학년(1학년 3학년, 2학년 3학년), 여학생 3개교 6학년(1학년 3학년, 2학년 3학년)씩 총 12학급의 424명(남학생 209, 여학생 215명)을 대상으로 하여 설문지를 통하여 조사하였다. 설문지에 응답한 시간은 약 30분 정도 소요되었으며 수거한 424부중 양부모와 함께 살지 않는 34부와 무응답이 많은 8부를 제외한 382명(남학생 182명, 여학생 200명)의 결과를 가지고 분석하였다.

1) 조사도구

학교스트레스: 원호택(1991)의 학교스트레스 15문항을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조사대상자는 각 문항에 대하여 어느 정도 스트레스를 받는지를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항상 그렇다(5점)”까지의 Likert방식의 5점 척도로 응답하도록 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응답자가 지각하는 스트레스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요인간에 중복이 높은 1 문항을 제거하여 최종적으로 14문항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 사용된 학교스트레스 척도 문항들의 내적 일치도 수준(Cronbach alpha)은 $\alpha = .747$ 이었다.

우울: Beck(1967)의 우울척도 21문항을 선정하여 측정하였다. 조사대상자는 각 문항에 대하여 어떻게 지각하는지를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항상 그렇다(5점)”까지의 Likert방식의 5점 척도로 응답하도록 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응답자가 지각하는 우울정도가 심함을 의미한다. 문항분석결과 내적합치도가 떨어지는 2문항을 제외한 19문항을 사용하였으며 본 연구에 사용된 우울척도 문항들의 내적 일치도 수준(Cronbach alpha)은 $\alpha = .840$ 이었다.

부모-자녀 의사소통: Olson과 Barnes(1982)의 PAC(Parent-Adolescent Communication)척도를 김윤희(1989)가 번안한 20문항을 선정하여 측정하였다. 조사대상자는 각 문항에 대하여 어떻게 지각하는지를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항상 그렇다(5점)”까지의 Likert방식의 5점 척도로 응답하도록 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응답자가 지각하는 부모와의 의사소통이 잘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 사용된 부모-자녀 의사소통 척도 문항들의 내적 일치도 수준(Cronbach alpha)은 $\alpha = .913$ 이었다.

자아존중감: Rosenberg(1965)의 자아존중감 척도 10문항을 선정하여 사용하였다. 조사대상자는 각 문항에 대하여 어떻게 지각하는지를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항상 그렇다(5점)”까지의 Likert방식의 5점 척도로 응답하도록 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응답자가 지각하는 자아존중감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문항분석결과 내적합치도가 떨어지는 1문항을 제외한 9문항을 사용하였으며 본 연구에 사용된 자아존중감 척도 문항들의 내적 일치도 수준(Cronbach alpha)은 $\alpha = .903$ 이었다.

부모의 내재적 지원: Young, Miller, Norton 및 Hill(1995)의 부모의 내재적 지원 척도 6문항을 번안하여 사용하였다. 조사대상자는 각 문항

에 대하여 어떻게 지각하는지를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항상 그렇다(5점)”까지의 Likert 방식의 5점 척도로 응답하도록 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응답자가 지각하는 부모의 내재적 지원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 사용된 부모의 내재적 지원 척도 문항들의 내적 일치도 수준(Cronbach alpha)은 $\alpha = .883$ 이었다.

2) 분석

자료를 분석하기 전에 다변량 극단치를 검증하였으며 이 결과 9명의 자료를 제외시켜서 최종적으로 373명(남학생 176명, 여학생 197명)의 자료를 가지고 최종분석에 이용하였다.

청소년들의 학교 스트레스의 구성개념을 확인하기 위하여 학교 스트레스 15문항을 SAS를 이용하여 공통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공통요인 분석중 특수변량과 오차변량에 대한 사전 지식이 없고 각 문항들내의 요인구조의 탐색에 목적이 있어서 주축요인분석(Principal factor analysis)을 실시하였고 Varimax회전을 시켰다(Tabachnick & Fidell, 1996). 공통분(communality)의 초기값은 SMC(중다상관관계곱값)를 사용하였고 요인의 수를 결정하기 위하여 스크리검사(Scree Plot), 누적분산비율, 해석가능성, 고유가(Eigenvalue)를 고려하였다.

학교스트레스 요인들과 자아존중감, 부모-자녀 의사소통, 부모의 내재적 지원들이 우울과의 관련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상관분석과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학교스트레스 하위요인들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완충할 것으로 예견되는 자아존중감, 부모-자녀 의사소통, 부모의 내재적 지원의 조절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조절적 중다회귀분석(Multiple Moderating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최근의 조절 효과들의 검증이 사회과

학이론 연구에서 주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으며 조절효과를 찾기 위한 많은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Cortina, 1993). 조절변인들이 조절효과가 있다는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서 많은 통계적 절차들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법은 조절적중다회귀법(Moderated Multiple Regression)과 하위집단상관계수법(Subgroup Correlation Coefficients)이다(Zedeck, 1971). 그런데 Stone-Romero와 Anderson(1994)은 조절효과를 탐지하는데 있어서 조절적중다회귀법과 하위집단에 근거한 상관계수법의 검증력 비교연구를 통하여 81가지의 모든 조건들에서 조절적 중다회귀법이 하위집단상관계수법보다 검증력이 뛰어난 것을 밝힌바 있으며, 많은 연구자들이 MMR이 조절변인들의 효과들을 찾기 위한 가장 적합한 방법이라고 결론지었다(Aiken & West, 1991; Zedeck, 1971).

학교관련 스트레스 변인들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완충할 것으로 예견되는 대처방법들의 조절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조절적 중다회귀분석(Multiple Moderating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Aiken & West, 1991). MMR이 SAS의 위계적 중다회귀(Hierarchical multiple regression)처리 과정을 통하여 수행되어졌다. 첫 번째로 각 X변인(학업스트레스, 학교경쟁스트레스, 학교폭력스트레스)과 각 Z변인(자아존중감, 부모-자녀 의사소통, 부모의 내재적 지원)을 예측변인으로 하여 Y(우울)를 예언하는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고(R_2^2) 두 번째로 X*Z의 새로운 변인을 생성하여 X*Z를 추가하여 Y를 예언하는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여(R_3^2) R_2^2 과 R_3^2 차이에 근거한 F값의 유의미성을 검증하였다. 만약 F값이 유의미하면 X*Z의 상호작용이 존재하며 조절효과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Evans, 1991). 본 연구에서는 인위적인 X*Z 변인이 추가되면 다중공선성(multicollinearity)이 증가되기 때문에 이를

감소하는 전략으로서 centering 방법(Aiken & West, 1991; Aldwin, 1994)을 사용하였다. X*Z의 증분이 유효하면 X와 Z의 비직선적 관계를 확인하였다. 즉 조절적 중다회귀분석을 통하여 조절효과가 나타난 경우에도 곡선적 효과에 의하여 의사조절효과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Lubinski & Humphreys, 1990; MacCallum & Mar, 1995) 조절변인과 곡선적 변인 모델중에서 조절변인에 의한 증분설명량이 많은 경우에만 조절효과가 있는 것으로 결론지었다.

결 과

1. 학교스트레스 요인분석결과

표 1에 학교스트레스 15개 문항에 대한 요인 분석결과가 제시되어있다. 이 중 요인1이 전체 분산의 57.14%를, 요인2가 26.99%를, 요인3이 15.88%를 설명하였다.

요인1은 주로 학업과 관련된 문항들을 포함하기 때문에 “학업스트레스”요인으로 명명하였다. 요인1에 .30이상의 요인부하량을 보이는 문항들은 5문항이었으나 ‘성적이 나빠서’ 문항은 요인2에도 높은 요인부하량을 보여 제외시켰다. 요인1은 5개의 문항들로 구성되었으며 신뢰도(Cronbach alpha)는 .736으로 나타났다. 요인2는 주로 친구들과의 경쟁과 관련된 문항들을 포함하기 때문에 “학교경쟁스트레스”요인으로 명명하였다. 요인2에 .30이상의 요인부하량을 보이는 문항들은 4문항이었으나 “노력에 비해서 공부가 안되어서”문항은 요인1에도 높은 요인부하량을 보여서 제외시켰다. 요인2는 3개의 문항들로 구성되었으며 신뢰도(Cronbach alpha)는 .703으로 나타났다.

표 1. 학교 스트레스 문항들을 varimax rotation한 요인부하량 행렬

문항내용	요인		
	요인1	요인2	요인3
하기 싫은 공부를 억지로 해야 되기 때문에	<u>.787</u>	-.051	.084
시험이라는 것을 생각만 해도	<u>.655</u>	.194	-.088
주의집중이 안되고 잡념이 많아서	<u>.607</u>	.151	.049
성적이 나빠서	.560	.387	-.073
가족이나 교사가 성적 때문에 처벌을 하거나 비난해서	<u>.524</u>	.160	.182
부모가 공부에 대한 지나친 기대를 하고 강요해서	<u>.346</u>	.172	.150
친구들에 비해서 열등감이 많아서	.115	<u>.664</u>	.218
친구와의 경쟁에서 뒤질 것 같아서	.282	<u>.610</u>	-.048
지나치게 공부만 하거나 경쟁적인 친구 때문에	.072	<u>.584</u>	.217
노력에 비해서 공부가 안되어서	.315	.482	.001
비난하거나 괴롭히는 친구 때문에	.096	.148	<u>.621</u>
불량배들의 폭력 때문에	-.023	-.041	<u>.580</u>
주변의 친구들에게 따돌림을 당해서	.065	.295	<u>.559</u>
선배들의 괴롭힘 때문에	.008	-.049	<u>.550</u>
친구가 비행을 저질러서	.084	.108	<u>.375</u>
요인고유가(Eigenvalue)	3.300	1.559	.917
요인분산도(% Variance Explained)	57.14	26.99	15.88
신뢰도(Cronbach alpha)	.736	.703	.677

주. N = 373. 각 요인별로 진하게 밑줄친 문항들이 선정된 문항임.
 요인1 = 학업스트레스; 요인2 = 학교경쟁스트레스; 요인3 = 학교폭력스트레스.

요인3은 주로 학교폭력 및 따돌림과 관련된 문항들을 포함하기 때문에 “학교폭력스트레스” 요인으로 명명하였다. 요인3은 5개의 문항들로 구성되었으며 신뢰도(Cronbach alpha)는 .677로 나타났다.

2. 남학생과 여학생의 우울과 관련변인들의 차이

남녀 고등학생의 집단별 우울과 관련변인들

의 평균차를 검증한 결과가 표 2에 제시되어 있다.

여학생들이 남학생들에 비해서 우울을 더 많이 경험하며, $t(371) = 3.20, p < .05$, 또한 학교 경쟁스트레스를 더 지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371) = 2.18, p < .05$. 남학생들이 여학생들에 비해서 학교폭력 스트레스를 더 지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371) = 2.40, p < .05$. 남학생이나 여학생 모두 학교폭력스트레스

표 2. 남녀별 우울과 관련변인들의 평균 및 표준편차

변 인	남학생(N = 176)	여학생(N = 197)	t
	평균(표준편차)	평균(표준편차)	
우울	2.58(.50)	2.76(.56)	3.20*
학업스트레스	3.23(.79)	3.25(.75)	.22
학교경쟁스트레스	2.23(.80)	2.42(.91)	2.18*
학교폭력스트레스	1.41(.43)	1.30(.43)	2.40*
자아존중감	3.51(.73)	3.40(.81)	.18
부모-자녀 의사소통	3.20(.60)	3.29(.66)	1.39
부모의 내재적 지원	3.94(.74)	3.91(.74)	.37

주. * $p < .05$. ** $p < .01$. *** $p < .001$.

표 3. 남녀별 변인들간의 상관관계

변 인	1	2	3	4	5	6	7
1. 우울	—	.37***	.25***	.32***	-.73***	-.51***	-.43***
2. 학업스트레스	.58***	—	.26***	.11	-.14	-.40***	-.15
3. 학교경쟁스트레스	.44***	.41***	—	.29***	-.29***	.01	.07
4. 학교폭력스트레스	.42**	.28***	.30***	—	-.30***	-.19*	-.15
5. 자아존중감	-.77***	-.50***	-.40***	-.35***	—	.37***	.36***
6. 부모-자녀 의사소통	-.60***	-.41***	-.28***	-.27***	.48***	—	.62***
7. 부모의 내재적 지원	-.53***	-.29***	-.14	-.32***	.49***	.77***	—

주. 대각선 위쪽은 남학생들(N = 176)의 상관관계; 대각선 아래쪽은 여학생들(N = 197)의 상관관계.
* $p < .05$. ** $p < .01$. *** $p < .001$.

5문항 중에서도 “주변의 친구들에게 따돌림을 당해서”, “비난하거나 괴롭히는 친구 때문에”의 문항들의 평균점수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서 학급 내에서의 “따돌림”이 중요한 학교폭력 스트레스원임을 시사한다.

3. 우울과 관련변인들간의 상관관계

남학생들의 우울은 학업스트레스($r = .37, p$

$< .001$), 학교폭력스트레스($r = .32, p < .001$), 학교경쟁스트레스($r = .25, p < .001$)와 유의미한 정적상관을 보인 반면에, 자아존중감($r = -.73, p < .001$), 부모-자녀 의사소통($r = -.51, p < .001$), 부모의 내재적 지원($r = -.43, p < .001$)과는 유의미한 부적상관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학업스트레스, 학교폭력스트레스, 학교경쟁스트레스를 더 지각하는 남학생들일수록 우울증상을 더 호소함을 의미한다. 또한 자아존

중감이 높을수록, 부모-자녀 의사소통이 원활할수록, 부모의 내재적 지원을 더 많이 받을수록 우울증상의 호소가 감소함을 의미한다.

남학생들의 학업스트레스는 학교경쟁스트레스($r = .26, p < .001$)와 유의미한 정적상관을 보인 반면에, 부모-자녀 의사소통($r = -.40, p < .001$)과는 유의미한 부적상관을 보였다. 그리고 학교경쟁스트레스는 학교폭력스트레스($r = .29, p < .001$)와 유의미한 정적상관을 보인 반면에, 자아존중감($r = -.29, p < .001$)과는 유의미한 부적상관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학업스트레스를 더 지각하는 남학생들일수록 더욱 학교경쟁스트레스를 지각하며, 부모-자녀 의사소통이 원활할수록 학업스트레스를 덜 지각함을 의미한다. 또한 학교경쟁스트레스를 더 지각하는 남학생들일수록 더 학교폭력스트레스를 경험하며,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학교경쟁스트레스를 덜 지각함을 의미한다.

남학생들의 학교폭력스트레스는 자아존중감($r = -.30, p < .001$), 부모-자녀 의사소통($r = -.19, p < .05$)과 유의미한 부적상관을 보였다. 따라서 자아존중감 높은 남학생들일수록, 부모-자녀 의사소통이 원활한 남학생들일수록 덜 학교폭력스트레스를 경험하는 것을 의미한다.

여학생들의 우울은 학업스트레스($r = .58, p < .001$), 학교경쟁스트레스($r = .44, p < .001$), 학교폭력스트레스($r = .42, p < .001$)와 유의미한 정적상관을 보인 반면에, 자아존중감($r = -.77, p < .001$), 부모-자녀 의사소통($r = -.60, p < .001$), 부모의 내재적 지원($r = -.53, p < .001$)과는 유의미한 부적상관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학업스트레스, 학교폭력스트레스, 학교경쟁스트레스를 더 지각하는 여학생들일수록 우울증상을 더 호소함을 의미한다. 또한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부모-자녀 의사소통이 원활할

수록, 부모의 내재적 지원을 더 많이 받을수록 우울증상의 호소가 감소함을 의미한다.

여학생들의 학업스트레스는 학교경쟁스트레스($r = .41, p < .001$), 학교폭력스트레스($r = .28, p < .001$)와 유의미한 정적상관을 보인 반면에, 자아존중감($r = -.50, p < .001$), 부모-자녀 의사소통($r = -.41, p < .001$), 부모의 내재적 지원($r = -.29, p < .001$)과는 유의미한 부적상관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학업스트레스를 더 지각하는 여학생들일수록 더욱 학교경쟁스트레스와 학교폭력스트레스를 지각하며,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부모-자녀 의사소통이 원활할수록, 부모의 내재적 지원을 더 받고 있다고 지각할수록 학업스트레스를 덜 지각함을 의미한다.

여학생들의 학교경쟁스트레스는 학교폭력스트레스($r = .30, p < .001$)와 유의미한 정적상관을 보인 반면에, 자아존중감($r = -.40, p < .001$), 부모-자녀 의사소통($r = -.28, p < .001$)과는 유의미한 부적상관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학교경쟁스트레스를 더 지각하는 여학생들일수록 더 학교폭력스트레스를 경험하며,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부모-자녀 의사소통이 원활할수록 학교경쟁스트레스를 덜 지각함을 의미한다.

여학생들의 학교폭력스트레스는 자아존중감($r = -.30, p < .001$), 부모의 내재적 지원($r = -.30, p < .001$), 부모-자녀 의사소통($r = -.19, p < .05$)과 유의미한 부적상관을 보였다. 따라서 자아존중감 높은 여학생들일수록, 부모의 내재적 지원을 더 받고 있다고 지각하는 여학생들일수록, 부모-자녀 의사소통이 원활한 여학생들일수록 덜 학교폭력스트레스를 경험하는 것을 의미한다.

결론적으로 남녀 학생 모두에 있어서 학업스트레스, 학교폭력스트레스, 학교경쟁스트레스는 우울증상을 증가시키며, 자아존중감, 부모-자녀

의사소통, 부모의 내재적 지원을 우울증상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는 나타났다.

4. 우울에 대한 관련변인들의 영향

학업스트레스, 학교경쟁스트레스, 학교폭력스트레스 요인들과 자아존중감, 부모-자녀 의사소통, 부모의 내재적 지원 변인들을 예측변인으로 하고 우울을 준거변인으로 하여 남학생과 여학생 별로 중다회귀분석을 한 결과가 표 4에 제시되어있다. 각 예측변인들의 가중치에 대한 이론적인 준거가 없어서 Stepwise 분석을 하였다.

표 4에 제시된 바와 같이 남학생들의 우울 증상은 자아존중감($\beta = -.60, p < .001$), 학업스

트레스($\beta = .20, p < .001$), 부모-자녀 의사소통($\beta = -.19, p < .001$)의 예측변인들이 유의미한 설명력을 보였으며 이들 예측변인들이 전체 준거변인의 변량을 설명하는 정도는 자아존중감이 52.6%를, 학업스트레스가 7.5%를, 부모-자녀 의사소통이 2.8%를 설명하여 남학생들의 우울 증상의 전체변량의 62.9%를 설명하고 있다.

반면에 여학생들의 우울 증상은 자아존중감($\beta = -.50, p < .001$), 부모-자녀 의사소통($\beta = -.24, p < .001$), 학업스트레스($\beta = .18, p < .001$), 학교폭력스트레스($\beta = .12, p < .001$)의 예측변인들이 유의미한 설명력을 보였으며 이들 예측변인들이 전체 준거변인의 변량을 설명하는 정도는 자아존중감이 58.7%를, 부모-자녀

표 4. 우울을 준거변인으로 한 Stepwise 중다회귀분석결과

단계와 예언변인	남 학생				여 학생				
	β	ΔR^2	R ²	ΔF	β	ΔR^2	R ²	ΔF	
1. 자아존중감	-.599***	.526	.526	268.68***					
2. 학업스트레스	.204***	.075	.601	32.53***					
3. 부모-자녀 의사소통	-.189***	.028	.629	12.31***					
4. 학교폭력스트레스	.091	.008	.637	3.52					
F				74.87***					
					1. 자아존중감	-.496***	.587	.587	277.54***
					2. 부모-자녀 의사소통	-.238***	.069	.656	39.24***
					3. 학업스트레스	.176***	.031	.687	18.87***
					4. 학교폭력스트레스	.117**	.014	.701	8.92**
					5. 학교경쟁스트레스	.069	.004	.705	2.34
					F				91.21***

주. β = 최종 회귀모델에서의 각 변인들의 표준화된 회귀계수. R² = 각 변인들의 투입후의 누적설명분산.
 ΔR^2 = 각 단계에서 해당 변인의 투입후의 설명분산의 변화. ΔF = 해당변인 투입에 기인한 ΔR^2 유의미성의 검증치.
 F = 최종회귀모델의 유의미성 검증치.
 N = 255., * $p < .05$, ** $p < .01$, *** $p < .001$.

의사소통이 6.9%를, 학업스트레스가 3.1%를, 학교폭력스트레스가 1.4%를 설명하여 여학생들의 우울 증상의 전체변량의 70.1%를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우울증상의 설명에 있어서 남학생들은 자아존중감과 학업스트레스가 여학생들은 자아존중감과 부모-자녀 의사소통이 가장 많은 설명력을 보이고 있다. 특히 여학생들은 남학생들에 비해서 학교폭력스트레스가 우울증상에 유의미한 설명력을 보여주고 있다.

5. 스트레스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부모의 내재적 지원의 조절효과

우울 증상을 준거변인으로 하여 남녀별로 학업스트레스, 학교경쟁스트레스, 학교폭력스트레스 각 예측변인과 자아존중감, 부모-자녀 의사소통, 부모의 내재적 지원 조절변인들간의 조절적 중다회귀분석을 하였다. 조절적 중다회귀분석을 통하여 부모의 내재적 지원변인의 조절

효과가 확인되었으며, 다시 이를 학교폭력스트레스 변인과 부모의 내재적 지원변인들이 곡선적 효과가 있는지를 검증하기 위해서 조절변인과 곡선적 변인 모델의 증분효과를 검증하였다. 여학생들에게서 학교폭력스트레스와 우울과의 관계에 대한 부모의 내재적 지원의 조절효과가 나타났으며, $\Delta R^2 = .016$, $\Delta Adj.R^2 = .013$, $\Delta F = 4.91$, $p < .05$, 이 증분효과가 (학교폭력스트레스)²의 변인에 의한 증분량과, $\Delta R^2 = .000$, $\Delta Adj.R^2 = .000$, $\Delta F < 1$, $p > .05$, (부모의 내재적 지원)²의 변인에 의한 증분량, $\Delta R^2 = .008$, $Adj.R^2 = .005$, $\Delta F = 2.34$, $p > .05$, 보다 더 커서 의사조절효과는 없고 조절효과만 있는 것으로 결론을 지었다.

표 5에 학교폭력스트레스를 예측변인으로 한 여학생 응답자들의 부모의 내재적 지원의 유의미한 조절변인의 효과가 제시되어 있으며 이러한 관계식이 그림 1에 제시되어 있다.

우울 증상과 연관된 학교폭력 스트레스와 부모의 내재적 지원간의 상호작용에 관한 설명의

표 5. 여학생들의 학교폭력스트레스를 예측변인으로 하여 부모의 내재적 지원 변인의 조절효과를 검증한 조절적 중다회귀분석결과

변 인	β	R^2	Adj. R^2	ΔR^2	$\Delta Adj.R^2$	F
Block1						
학교폭력스트레스(A)	.287***					
부모의 내재적지원(B)	-.434***	.350	.343	.350	.343	50.64***
Block2						
A×B	.155*	.366	.356	.016	.013	4.91*

주. β = 최종 회귀모델에서의 각 변인들의 표준화된 회귀계수. R^2 = block들의 투입후의 누적설명변량.

Adj. R^2 = 예측변인들의 수를 조정한 block들의 투입후에 누적 설명 변량.

ΔR^2 = block 투입후의 설명변량의 변화. Adj. ΔR^2 = 예측변인들의 수를 조정한 block 투입후의 설명변량의 변화.

F = block 투입에 기인한 ΔR^2 의 유의미성의 검증치. 여학생 N =197.

* $p < .05$, ** $p < .01$, *** $p < .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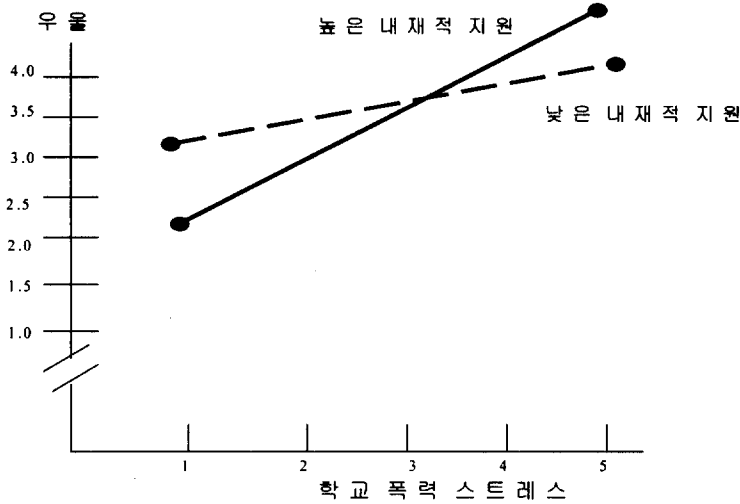


그림 1 여학생들의 학교폭력스트레스와 부모의 내재적 지원과의 상호작용

목적에 위해서 높은 부모의 내재적 지원은 부모의 내재적 지원 평균점수의 +1 표준편차 이상의 표집을, 낮은 부모의 내재적 지원은 -1 표준편차 이하의 표집을 사용해서 분석하였다. 그림 1에 도해된 바와 같이 부모의 내재적 지원 점수가 높은 여학생 응답자들이나 부모의 내재적 지원 점수가 낮은 여학생 응답자들 모두 학교폭력스트레스와 우울 증상간에 정적인 관계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부모의 내재적 지원 점수가 낮은 여학생 응답자들에 비해서 부모의 내재적 지원 점수가 높은 여학생 응답자들이 학교폭력스트레스와 우울 증상간에 보다 강한 정적인 관계를 보이고 있다. 즉 부모의 내재적 지원 점수가 낮은 여학생 응답자들은 학교폭력스트레스가 증가하면 우울 증상의 보고도 점진적으로 증가하나 부모의 내재적 지원 점수가 높은 여학생 응답자들은 학교폭력스트레스가 증가하면 우울 증상의 보고가 급격히 증가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학교폭력스트레스가 증가될 때 부모의 내재적 지원을 많이

받는 여학생 응답자들이 부모의 내재적 지원을 적게 받는 여학생 응답자들에 비해서 우울 증상의 증가폭이 큰 것으로 보인다. 결국 여학생들에게서 학교폭력스트레스가 증가할 때 부모의 내재적 지원은 우울 증상을 증폭시키는 역완충효과(counter buffering effect)가 있다.

논 의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이 지각하는 학교관련 스트레스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고, 청소년이 지각하는 학교관련스트레스, 자아존중감, 부모-자녀 의사소통, 부모의 내재적 지원 변인들이 우울을 설명하는 정도가 남·녀 청소년간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또한 지각된 학교관련 스트레스가 청소년의 우울에 미치는 과정에서 지각된 부모-자녀의사소통, 자아존중감과 부모의 내재적 지원의 완충효과가 있는지 검증하고자 하였다. 먼저 청소년이 지각하는 학교관련 스트레스들의 요인분석결과를 보

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전체 분산의 57.1%를 설명하는 제 1요인은 학업스트레스였으며 26.99%를 설명하는 제 2요인은 학교경쟁스트레스였고 마지막 요인으로는 15.88%를 설명하는 학교폭력스트레스였다. 이러한 결과는 입시위주의 교육 현실을 고려해볼 때 다른 연구와 다르지 않으나 학교폭력스트레스가 제 3의 요인으로 나타난 점은 학교 현장에서 학교폭력스트레스가 일반화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외국의 연구 결과들과도 다르지 않다. 노르웨이에서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실시된 종단적 연구는 5% 정도의 학생들이 이러한 학교폭력을 과거에 경험했거나 지금 경험하고 있으며 9% 정도의 학생들은 날마다 학교폭력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Olweus, 1993), 미국에서 실시된 연구에서는 학교폭력이 노르웨이보다 더 일반적이며 신체적으로나 언어적으로 공격을 당하는 학생들은 또래집단으로부터 거부당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는 이러한 학생들이 부적응 어린이들이 가지고 있는 사회 적응 문제에 쉽게 노출될 수 있음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거부된 어린이들이 학교를 중도에 포기하거나 비행화 되고 우울하거나 심지어 자살까지 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어(Perry, Kusel, & Perry, 1988) 학교폭력에 대한 구체적이고 체계적이며 실현 가능한 대책이 시급함을 강조한다.

둘째, 청소년이 지각하는 학교관련 스트레스, 자아존중감, 부모-자녀 의사소통, 부모의 내재적 지원 변인들이 우울을 설명하는 정도가 남·녀 청소년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관련스트레스 요인들과 자아존중감, 부모-자녀 의사소통, 부모의 내재적 지원 변인들을 예측변인으로 하고 우울을 준거변인으로 남·여 청소년 별로 중다회귀분석을 한 결과 남학생들의 전체 준거변인의 변량을 설명하는 정도는 자아

존중감이 52.6%, 학업스트레스가 7.5%, 부모-자녀 의사소통이 2.8%를 설명하고 여학생들의 우울 증상은 자아존중감이 58.7%, 부모-자녀 의사소통이 6.9%, 학업스트레스가 3.1%, 학교폭력스트레스가 1.4%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여학생 모두에게 우울 증상을 설명하는데 있어서 자아존중감과 부모-자녀 의사소통이 중요한 변인들인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여학생들은 남학생들과 달리 학교폭력스트레스가 우울 증상에 유의미한 설명력을 보여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1-12세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Lagerspetz, Bjorkqvist, & Peltonen, 1988)에서 나타났듯이 남학생보다는 여학생들이 또래집단과의 관계를 중시하기 때문에 사회적 공격성에 대한 경험을 더 잘 기억하여 반응했기 때문인지, 실제 남학생보다는 여학생에게 학교폭력스트레스가 더 심각한 특정한 원인이 있는지 추후연구가 필요하며 특히 남·여 청소년 우울 증상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자아존중감과 부모-자녀의사소통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나 어떻게 남·여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을 향상시키고, 부모-자녀의사소통을 촉진시킬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전략과 이에 대한 훈련프로그램 개발이 시급하다 하겠다.

셋째, 학교관련스트레스가 청소년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부모-자녀 의사소통, 자아존중감, 부모의 내재적 지원이 완충효과가 있는지 살펴보기 위하여 우울 증상을 준거변인으로 하여 남녀별로 학업스트레스, 학교경쟁스트레스, 학교폭력스트레스 각 예측변인과 자아존중감, 부모-자녀 의사소통, 부모의 내재적 지원 조절변인들간의 조절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학교폭력스트레스를 예측변인으로 한 여학생들에게만 부모의 내재적 지원이 유의미한 역조절효과를 보였다. 이는 학교폭력스트

레스가 증가하면 평소에 부모로부터 내재적 지지를 많이 받는 여학생들이 부모로부터 내재적 지지를 적게 받는 여학생들 보다 우울 증상 증가폭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부모의 내재적 지지를 많이 받는 여학생이 부모의 내재적 지지를 적게 받는 학생들보다 자아존중감이 더 높아 스스로 문제해결을 하여야 한다고 지각하는 까닭인지 아니면 부모의 내재적 지지를 많이 받는 여학생들이 우울에 더 민감한 어떤 원인이 있는지 이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하겠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최근에 부모교육 프로그램에서 일반적으로 강조하는 격려나 지지 또는 칭찬이 자녀 교육에 중요하다는 관점에 대한 새로운 시각이 필요하다는 시사점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 하겠다.

본 연구의 몇 가지 제한점과 앞으로의 연구 과제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이 지각하는 학교관련 스트레스, 우울, 자아존중감, 부모-자녀 의사소통이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은 이를 객관적으로 측정할 경우와 청소년이 주관적으로 지각 및 평가한 경우간에 차이를 보일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자기보고식 설문지에 근거하여 청소년의 주관적인 지각을 근거로 연구하였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측정된 경우와의 차이를 설명할 수 없었다. 따라서 차후에서는 심층면접을 하거나 다양한 객관적 방법을 통하여 이러한 두 방향에서 조사한 연구가 필요하다. 이는 청소년의 우울과 학교관련스트레스를 이해하고 예방하는데 도움을 주며 실제적이고 체계적인 프로그램 개발에 많은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본 연구는 고 1-2학년들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를 다른 학년의 학생들에게 일반화 할 수 없다. 요즘 학생들이

학년만 달라도 전혀 다른 행동양식을 보여준다는 점을 고려해보면 다양한 학년층을 대상으로 한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여학생들에 대한 부모의 내재적 지지만이 역완충효과를 나타냈다. 현장 연구가 실험연구에 비해서 상호작용효과를 발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McClelland & Judd, 1993) 본 연구에서 완충효과가 발견되지 않은 자아존중감, 부모-자녀 의사소통 변인들에 대해서는 차후 대규모 표집의 연구를 통하여 효과가 재확인되어야 한다.

넷째, 본 연구에서 조절적 중다회귀분석을 통하여 대처방식들의 완충효과를 확인하였고, 의사조절효과를 통제하기 위하여 비직선성을 검증하였다. 그러나 전통적인 중다회귀분석 방법들은 측정오차가 발생하며 이런 측정오차들이 회귀계수에 있어서의 편향을 일으키고 상호작용효과의 검증력을 떨어뜨리기 때문에(Jaccard & Wan, 1995) 측정오차의 교정이 가능한 공변량 구조모형에 의한 분석이 요구된다.

참고문헌

- 김선남(1994). 청소년 비행 관련 변인간의 인과적 분석. 전남대학교 교육학과 박사학위 논문.
- 김윤희(1989). 부부 관계 및 부모 자녀 의사소통 가족 기능과 청소년 자녀 비행과의 관계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민하영(1991). 청소년 비행과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 가족의 응집 및 적응과의 관계.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윤진(1993). 청소년에 관한 심리학적 연구 방향. 청소년학 연구, 1, 17-26.
- 원호택(1991). 청소년 범죄행동 유발 원인에 대

- 한 심리학적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최태산(1997). 청소년 비행과 자살생각에 미치는 가족역동의 심리적 변인간의 인과적 분석. 전남대학교 박사학위 청구논문.
- 한국청소년개발원(1993). 청소년문제론. 서울: 서원.
- Aiken, L. S., & West, S. G. (1991). *Multiple regression: Testing and interpreting interactions*. Newbury Park, CA: Sage.
- Barber, B. K., & Rollins, B. C. (1990). Parent-adolescent relationship. Lanham, MD: University Press of America.
- Barnes, G. M., Farrell, M. P., & Windle, M. (1987). Parent-adolescent interactions in the development of alcohol abuse and other deviant behaviors. *Family Perspectives*, 21, 321-335.
- Barnes, H. L., & Olson, D. H. (1985). Parent-adolescent communication & the circumplex model. *Child Development*, 56, 438-447.
- Beck, A. T. (1967). *Depression: Clinical, experimental, and theoretical aspects*. New York: Harper and Row.
- Coopersmith, S. (1967). *The Antecedents of Self-esteem*. San Francisco: W. H. Freeman.
- Cortina, J. M. (1993). What is coefficient alpha? An examination of theory and applications.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78, 98-104.
- Evans, M. G. (1991). Problems of analyzing multiplicative composites. *American Psychologist*, 46, 6-15.
- Gecas, V. (1971). Parental behavior and dimensions of adolescent self-evaluation. *Sociometry* 34, 466-482.
- Hoelter, J. W. (1984). The analysis of covariance structures: Goodness-of-fit indices. *Sociological Methods and Research*, 11, 325-344.
- Hoelter, J., & Harper, L. (1987). Structural and interpersonal family influences on adolescent self-conception.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9, 129-139.
- Jaccard, J., & Wan, C. K. (1995). Measurement error in the analysis of interaction effects between continuous predictors using multiple regression: Multiple indicator and structural equation approaches. *Psychological Bulletin*, 117, 348-357.
- Kahle, L. R., Kulka, R. A. & Klingel, D. M. (1980). Low adolescent self-esteem leads to multiple interpersonal problems: A test of social-adaptation theor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9, 496-502.
- Kandel, D., & Davies, M. (1986). Adult sequences of adolescent symptoms. *Archives of General Psychiatry* 43, 255-262.
- Kaplan, H. B. (1976). Self-attitudes and deviant response. *Social Forces*, 54, 788-801.
- Kaplan, S. L., Hong K. G., & Weinhold C. (1984). Epidemiology of depressive symptomatology in adolescents.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Child Psychiatry* 23, 91-98.
- Lagerspetz, K. M., Bjorkqvist, K., & Peltonen, T. (1988). Is indirect aggression typical of females? Gender differences in aggressiveness in 11-to 12-year-old children. *Aggressive Behavior*, 14, 403-414.
- Lubinski, D., & Humphreys, L. G. (1990). Assessing spurious "moderator effects": Illustrated substantively with the hypothesized("synergistic") relation between spatial and mathematical ability. *Psychological Bulletin*, 107, 385-393.

- MacCallum, R. C., & Mar, C. M. (1995). Distinguishing between moderator and quadratic effects in multiple regression. *Psychological Bulletin*, 118, 405-421.
- McClelland, G. H., & Judd, C. M. (1993). Statistical difficulties of detecting interactions and moderator effects. *Psychological Bulletin*, 114, 376-390.
- Olson, D. H., & Barnes, H. (1982). Parent-adolescent communication scales. In D. H. Olson, H. I. McCubbin, H. Barnes, A. Larsen, M. Muxen, M. Wilson (Eds.). *Family Inventories*. St. Paul, MN: University of Minnesota, Family Social Science.
- Olweus, D. (1993). *Bullying at school: What we know and what we can do*. Oxford, UK: Blackwell.
- Openshaw, D. K., Thomas, D. L., & Rollins, B. C. (1984). Parental influences on adolescent self-esteem. *Journal of Early Adolescence* 4, 259-274.
- Perry, D. G., Kusel, S. J., & Perry, L. C. (1988). Victims of peer aggression. *Developmental Psychology*, 24, 807-814.
- Rollins, B. C., & Thomas, D. L. (1979). Parental support, power, and control techniques in the socialization of children. In W. R. Burr, R. Hill, F. I. Nye, & I. L. Reiss (Eds.), *Contemporary theories about the family* (Vol. 1, pp. 317-364). New York: Free Press.
- Rosenberg, M. (1965). *Society and the adolescent self-image*,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 Simons, R. L., & P. I. Murphy (1985). Sex differences in the causes of adolescent suicide ideation. *Journal of Youth Adolescence* 14, 423-434.
- Stone-Romero, E. F., & Anderson, L. E. (1994). Techniques for detecting moderation effects: relative statistical power of multiple regression and the comparison of subgroup-based correlation coefficients.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79, 354-359.
- Tabachnick, B. G., & Fidell, L. S. (1996). *Using multivariate statistics* (3rd ed.). New York: HarperCollins College Publishers.
- Teri, L. (1982). The use of the Beck Depression Inventory with adolescents.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10, 277-284.
- Young, M. H., Miller, B. C., Norton, M. C., & Hill, E. J. (1995). The effect of parental supportive behaviors on life satisfaction of adolescent offspring.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7, 813-822.
- Zedeck, S. (1971). Problems with the use of "moderator" variables. *Psychological Bulletin*, 6, 295-310.

Effects of Stress Related to School, Self-Esteem, Parent-Children Communication and Parents' Internal Support of Adolescent Depression.

Eun-Hee Lee Tae-San Choi Mi-Jung Seo

Research Group for Developing Self-Leadership for Parents, Teachers and Students Chonnam National University

The present study examined the effects of the perceived stress related to school, self-esteem, parent-children communication and parents' internal support on adolescent depression, as well as the moderating effect of perceived parent-children communication, self-esteem, and parents' internal support on the relationships between the perceived stress related to school and adolescent depression differently upon the gender. A Questionnaire was distributed to 373 high school students (including 197 girls and 176 boys).

Results of stepwise multiple regression showed that we can predict the levels of boys' depression with self-esteem, schoolwork stress, parent-children communication. We can also predict the levels of boys' depression with self-esteem, parent-children communication, schoolwork stress, and school violence stress. Among all the predictors, self-esteem had the largest effect on predicting levels of adolescent depression. Moderated multiple regression showed that parents' internal support negatively moder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depression and school violence stress in girls. Implications and limitations of the results and suggestions for future study were discussed.